

coop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연도와 업종을 중심으로

박정기, 최다미, 김용덕, 이유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회적경제본부 협동조합팀



## < 목 차 >

1. 들어가며 .....	1
2. 협동조합 기본계획 .....	3
1)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3
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4
3)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5
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분석 .....	8
1) 경기도 동북부 .....	9
2) 경기도 서해안 .....	27
3) 경기도 남부 .....	43
4) 경기도 북부 .....	71
4. 맺으며 .....	90



## 1. 들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협동조합의 장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을 일자리·복지·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된 요인은 기존 주식회사 모델과는 달리 소유측면에서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소유 기업으로서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운영을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의 결합이 아닌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기업과는 차별화된 운영모델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경제모델로 주목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5인 이상 조합원이 모이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들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을 규정하는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있었으나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영역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컸기 때문에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활동을 지향하는 협동조합기본법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은 21,128개소로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17,842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은 3,174개소,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0개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개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2개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sup>1)</sup>

일반협동조합의 지역별 설립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체의 22%인 3,887개소, 경기도가 18%인 3,172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일반협동조합의

---

1) 협동조합 홈페이지 주요통계 참조. <https://www.coop.go.kr/COOP/>. 2021년 8월 8일 기준

40%를 차지하는 등 지역별 편중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45%가 서울시,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경제·사회·문화 등의 인프라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치이다.<sup>2)</sup>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2년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육성-내실화-성장기반 확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에 한정하여 연도별, 업종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살펴보고, 협동조합 기본계획 목표와 전략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실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협동조합들이 발굴되고, 육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경기도를 동북부, 서해안, 남부, 북부 등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정책적 요인 뿐 아니라 도시-농촌-도농복합 등 경기도의 공간적 환경이 협동조합 설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로 한정된 이유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 간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자료 확보, 서울시와 더불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의 경향성을 분석하는데 데이터의 과대 대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sup>3)</sup> 한편, 데이터를 설립연도와 업종으로 제한한 이유는 협동조합 홈페이지 설립현황 엑셀 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으며, 설립연도와 업종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 2021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데이터 참고(2021년 8월 8일 기준)

3) 협동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설립현황의 엑셀 표에 따르면 2021년 8월 8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738개소,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705개소이다.

## 2.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 1)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3년 7월에 진행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sup>4)</sup> 협동조합은 시장 진입, 물적 자본, 인적 자본,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이 존재하며,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서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을 목표로 했다.

시장 진입은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이 포함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며, 부모협동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를 활성화한다.

자금 조달은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세제혜택, 투자 조합원 제도 도입 등 정책자금 활용과 내부자금 확충이 있으며,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을 확대하는 등 금융자원 활용을 들 수 있다.

인력양성은 교육 확대 및 인력유입 활성화로 협동조합 임직원별, 창업단계별

---

4) 실태조사 내용은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14~2016년) 참조, 기획재정부(2013)

교육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며,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하는 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가 있다.

연대·협력은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있고,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가 있으며, 민간·지자체·각부처 등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 확대·발전 등 국내 네트워크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있다.

## 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특히 청년창업을 포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협동조합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 미비와 영세성 등으로 여전히 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며,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2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2016년 제1차 기본계획 평가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 등 4대 핵심전략을 토대로 11대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다. 먼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 유통 인프라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연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활용 제고와 외부 투자자원 유인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며,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프리랜서의 근로 조건 개선과 창업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 등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네트워크 강화는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장여건을 조성하며, 지역 내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민관 파트너십 강화, 협동조합 설립·변경·폐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강화로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등 정책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인식개선은 유형별 우수사례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 등 대국민 홍보강화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국제 행사 개최,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탐방·연수 지원 등 미래 세대의 교육확대와 글로벌 연대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 3)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로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적 확대를 달성했으며,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하여 운영·경영성과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규직 비율, 월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승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복원에 기여했다.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종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휴먼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등 협동조합 인프라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다만, 업종과 규모 측면에서 한계점이 발견되었고, 연대·협력 활동이 낮고, 대표성 있는 연합회도 부재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휴면조합 등 낮은 사업 운영률, 소수의 악용사례가 부각되고 있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제도 도입·정착기를 지나 성장기로 전환을 준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sup>5)</sup> 특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이 포용성장과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9년 4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방향이 마련되었고,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추진되었다. 노동자 기업인수·협동조합 전환모델 등 연구용역,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책적 과제를 발굴했으며, 정부-중간지원기관-민간조직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다. 2019년 11월에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 상정했으며, 2020년 1월 제4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정책이 설계되었으며, 5대 전략을 토대로 15대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었다. 먼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위해 돌봄 시장,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확대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고,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프리랜서 협동조합 설립 등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한다. 사업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고도화 등으로 협동조합 Scale-up을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간 연대강화를 위해 대표 연합회 설립지원 등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생지원 등 협동조합 간 연대를 촉진한다. 또한 연합회를 통한 자율감사, 자율공시 강화 등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등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공공시장 진출지원 등 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 시도·협의회 강화와 시·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자치단체 추진체계를 공고화한다.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세 면제 등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을

---

5)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 기획재정부(2020)

제공한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부처 중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며,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부조달의 안정성 강화 등 금융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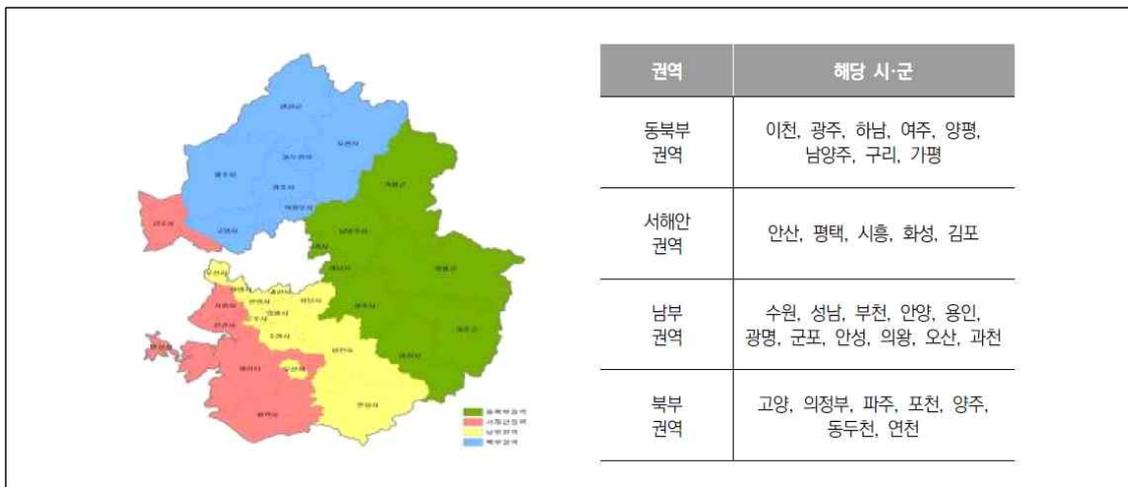
교육 및 홍보 내실화를 위해 사전 교육 콘텐츠 개발과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활성화 등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경영진단 프로그램 및 현장 코칭 확대 등 현장·참여형 교육을 확대한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쇄신 등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고자 한다.

### 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분석

경기 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 전략산업 배치 차원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재편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동북부 권역, 서해안 권역, 남부 권역, 북부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sup>6)</sup>

2020년 기준 경기도에는 일반협동조합이 2,887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605개소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물론 4개 권역의 전략산업과 발전전략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구분했으며, 31개 모든 시군의 협동조합을 연도별, 업종별로 분석한 뒤 권역별 특성을 유추해 낼 것이다.

<그림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근거한 4개 권역 구분



자료 : 경기 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 p.5

6)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서 7대 핵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산업·경제부문 발전계획을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세부 계획을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방안 :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2015) p.32-33

## 1) 경기도 동북부

경기도 동북부 권역은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총 8개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동북부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이며, 귀농·귀촌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농업 지역이 많이 남아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의 농업 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 (1) 이천시

<표1> 이천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5	-	15
2014	7	1	8
2015	4	-	4
2016	3	1	4
2017	1	2	3
2018	1	-	1
2019	4	1	5
2020	7	2	9
합 계	42	7	49

이천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총 49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2013년에 농산물 판매, 도자기 생산을 하는 일반협동조합이 다수 설립 되었다. 이천시는 이천 쌀로 대표될 정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직거래가 활발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자 도시로 도자기 생산이 유명하다.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수가 늘어났는데 2019년 이천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창업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실제 창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전년  
도보다 협동조합 설립 수가 많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표2> 이천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7	1	8
건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16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교육서비스업	3	2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	1
농업, 어업 및 임업	8	1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	2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1	-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42	7	49

이천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제조  
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업 어업 및 임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조업이 16개소(39%)로 주요사업은 도자기 생산, 도자기 제품디자인,  
온라인 판매 등이며, 이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도자 도시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천의 대표 행사인 도자기 축제는 이천도자기  
사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은 8개소(19%)로 주요사업은 농산물 판매, 농촌체험, 각

중 경작물 생산 등이며, 도매 및 소매업은 7개소(16%)로 확인되고 있다. 이천시는 농·특산품이 유명한 만큼 명절 특선산물, 쌀, 도라지 등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도매 및 소매업 순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개소(42%)로 주요사업은 보육서비스, 취약 계층 사회복지사업, 다함께돌봄센터 등이다.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통합 돌봄을 추구하며, 비영리법인이 적합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업 2개소(28%)는 학생 교육복지, 학교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광주시

<표3> 광주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4	-	14
2014	13	-	13
2015	6	-	6
2016	3	-	3
2017	8	1	9
2018	9	-	9
2019	17	3	20
2020	9	5	14
합 계	79	9	88

광주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8개가 설립되었다. 일반협동조합은 2013년, 2014년에 설립 수가 많으며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다 2017년에 일부 증가하며, 다시 2019년에 17개 조합이 설립되는 등 크게 증가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2019년에 일반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된 이유는 광주시가 2018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으며,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일반협동조합들이 다수 설립되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도 꾸준히 설립되었다.<sup>7)</sup>

2017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티아 이쿱이며, 성인발달장애인 교육 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잠정 휴업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표4> 광주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9	-	9
건설업	6	-	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	3
제조업	16	1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4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	2
교육서비스업	8	2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2	7
농업, 어업 및 임업	12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	2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3	-	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79	9	88

7) 2019년 광주시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 광주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최우수상 수상」, <신아일보>, 2020.12.30

광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어업 및 임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설립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은 16개소(20%)로 주로 공예품제작, 가구제작, 광고물 제작 및 유통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1971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참가해 꾸준히 상을 받았으며, 2021년에도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한 관내 작가 6명이 입상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공예품 분야가 발달해 있다.<sup>8)</sup>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협동조합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은 12개소(15.18%)로 농·수산물 재배·생산·제조·유통·판매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를 설치했고, 우수농산물 재배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개소(44%)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노인 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하남시

하남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개 조합이 설립되었다. 일반협동조합은 2013년에 10개 이상 설립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까지는 조합 설립이 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하남시에 처음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파란하늘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부모 뿐 아니라 교사와, 졸업생, 지역주민 등

---

8) 광주시 제51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참조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2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이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2018년에는 하남시에서 최초로 공동육아나눔터도 개소되었다.

<표5> 하남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0	-	10
2014	4	-	4
2015	7	1	8
2016	3	2	5
2017	4	1	5
2018	6	-	6
2019	8	2	10
2020	9	3	12
합 계	51	9	60

하남시는 2019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4월 23일에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하남시 김상호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새로운 혁신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sup>9)</sup>

하남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선 도매 및 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6> 하남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20	1	21
건설업	1	-	1

9) 「하남시'사회적경제기업육성, 일자리 창출한다」, <아주경제>, 2019.04.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6	-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2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	3
교육서비스업	4	3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	3
농업, 어업 및 임업	4	-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	2
운수업	3	-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1	1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51	9	60

도매 및 소매업은 20개소(39%)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설립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제품개발, 생산 유통, 디자인 사업, 학교급식 사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은 6개소(11%)로 하남시는 2018년에 가구산업을 위해 하남가구협동조합과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가구분야 제조업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은 4개소(7%)로 주 사업은 산림자원, 도시농업 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 서비스업 3개소(50%)가 활동하고 있는데, 방과 후 돌봄, 경기 꿈의 학교 등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 (4) 여주시

여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76개 조합이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여주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2	-	12
2014	7	-	7
2015	4	-	4
2016	8	-	8
2017	5	-	5
2018	5	-	5
2019	13	3	16
2020	13	6	19
합 계	67	9	76

여주시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2019년에 개소했으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여주시는 찾아가는 사회적공동체 맞춤 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에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설립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에 처음으로 3개소가 설립되었으며, 도자기 공예품 판매와 신재생에너지 생산·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이주민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취업을 통해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갖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8> 여주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6	-	6
건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2
제조업	10	1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1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1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	10
교육서비스업	9	1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	5
농업, 어업 및 임업	21	3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1	2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1	-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67	9	76

여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농업, 어업 및 임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은 21개소(31%)로 농산물 생산, 특산물 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주시는 2019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립했고, 2020년부터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전을 진행할 정도로 농업분야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제조업은 10개소(14%)로 주 사업은 도자기 생산·판매를 수행하고 있다. 여주도자기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협동조합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0개소(14%)로 태양광 발전사업, 농수산물 유통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 여주시는 태양광사업에 참여했으며,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시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sup>10)</sup>

#### (5) 양평균

10)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선정」, <위클리오늘>, 2021.07.29

양평군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5개 조합이 설립되었다. 일반협동조합은 77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은 8개소가 설립되었으며, 양평군은 2016년에 관내 47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는 양평군사회적경제협의회가 설립될 정도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

<표9> 양평군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2	-	12
2014	9	-	9
2015	10	-	10
2016	9	2	11
2017	9	-	9
2018	5	1	6
2019	12	2	14
2020	11	3	14
합 계	77	8	85

특히 양평군은 농촌 관광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관광경영체가 모인 양평관광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양평군 물소리길 협동조합의 관광 프로그램인 물소리길은 양평의 대표 관광지로 세계 100대 정원에 선정되었으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물소리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로컬 푸드와 도시락을 판매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표10> 양평군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4	-	4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	1
제조업	5	1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	2
교육서비스업	7	4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	15
농업, 어업 및 임업	23	1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	1
운수업	-	1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3	-	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77	8	85

양평군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확인된다.

우선 농업, 어업 및 임업은 23개소(30%)이며, 농산물 생산, 산림, 숲 체험 등이다. 2020년에 양평군은 양평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로컬푸드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8월에는 양평군과 양평농업협동조합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협약식을 맺는 등 양평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에 힘쓰고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15개소(19%)이며, 문화관광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양평을 지향하는 양평군은 생활예술, 평생학습, 생태, 지역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주도형 문화공동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도시인 만큼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 서비스업 4개소(50%)이며 돌봄 교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인된다. 돌봄 교실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관련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양평군 역시 타 지역과 비슷하게 교육서비스 업종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남양주시

<표11> 남양주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24	1	25
2014	20	1	21
2015	17	4	21
2016	17	3	20
2017	10	5	15
2018	8	2	10
2019	11	6	17
2020	11	9	20
합 계	118	31	149

남양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9개 조합이 설립되었다. 남양주시는 2011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 알리기에 앞장섰으며,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sup>11)</sup> 남양주시는 2013년에 협동조합 설립 붐이라는 타이틀이 생겼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학교 운영을 시작했다.<sup>12)</sup> 이를 근거로 2013년에는 일반협동조합 24개소가 설립되었다.

남양주시는 2016년에 사회적경제 ‘다’함께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려운 개념인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쉽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sup>13)</sup>

특히 2016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건설·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000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도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

11) 「이석우 남양주시장 시정연설 전문」, <아주경제>, 2013.02.15

12) 「남양주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성공전략’ 교육」, <경기일보>, 2013.09.04

13) 「[창조경제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다’함께 페스티벌 성료」, <남양주시 보도자료>, 2016.06.28

적경제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표12> 남양주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23	1	24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	3
제조업	13	1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	11	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	4
교육서비스업	22	10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	11
농업, 어업 및 임업	10	-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1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2	2
운수업	5	-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1	7
숙박 및 음식점업	-	1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2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	2
합 계	116	30	144

남양주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3개소(19%)로 주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업, 체험농장, 커피 재배 등이며, 남양주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농업기술인 낙농 시설원예, 가공 분야 농업기술을 전수해 농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역시 이 영향을 받아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서비스는 22개소(18%)로 주 사업은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교육, 돌봄사업 등으로 확인된다. 교육서비스 업종은 타 업종과는 달리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은 13개소(11%)로 주 사업은 실내 인테리어, 식자재 생산 유통, 사무용 의자 및 가구 사업 등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개소(36%)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사업, 취약계층 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20년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남양주시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다.<sup>14)</sup>

### (7) 구리시

<표13> 구리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5	-	5
2014	4	-	4
2015	3	1	4
2016	5	1	6
2017	3	-	3
2018	2	-	2
2019	2	-	2
2020	6	3	9
합계	30	5	35

구리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2012년에 구리·남양주시는 의료분야 협동조합 추진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2019 사회적경제 뉴딜을 추진해 협동조합에 관한 행정예산을 지원했다.

2015년에 설립된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관내 공동체와 사회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구리시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14) 「남양주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상’ 수상」, <뉴스웍스>, 2020.12.22

<표14> 구리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7	-	7
건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3	-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1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1
교육서비스업	6	2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	4
농업, 어업 및 임업	1	-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1	3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	1
숙박 및 음식점업	1	-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30	5	35

구리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7개소(23%)로 유기농식품 유통, 공동상품구매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6개소(20%)로 교육사업, 학생교육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비교적 타 업종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아 협동조합 설립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 서비스업 2개소(40%)로 사회적경제교육과 창업·취업 컨설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리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사업인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인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 구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15)</sup>

(8) 가평군

<표15> 가평군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2	-	2
2014	8	-	8
2015	6	-	6
2016	7	1	8
2017	8	1	9
2018	2	2	4
2019	6	1	7
2020	12	1	13
합계	51	6	57

가평군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7개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처음 설립되었다. 가평 자원재생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재활용선 별장 관리운영사업,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가평군 청평면사무소에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귀촌귀농 교육을 진행했다.

가평군은 2021년에 사회적경제협의회 발대식이 개최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늦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회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평의 농·특산물, 교육, 한지, 한과, 예술학교, 조청, 숙박업소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정해 일자리 창출과 수익구조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

가평군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순으로 확인된다.

15) 「시민이 행복한 안전·경제도시...안승남 시장이 꿈꾸는 구리시 '성큼」, <아시아타임즈>, 2021.07.19

<표16> 가평군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8	-	8
건설업	1	1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2
제조업	5	-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교육서비스업	2	2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	1	18
농업, 어업 및 임업	7	1	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	1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47	6	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17개소(36%)로 관광지 체험,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평군은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 관광지로써 협동조합에서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설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도매 및 소매업은 8개소(17%)이며 발효식품, 식품제조 유통 판매, 지역농산물 판매 등이며, 가평의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발굴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은 7개소(14%)로 농특산물, 조경 사업,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감21 부설 가평귀촌귀농학교는 귀촌귀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했으며, 가평군 귀촌귀농에 대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이 제일 많으며, 건설업, 전기, 가스, 증

기 및 수도 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순이다. 교육서비스업은 2개소(33%)이며 주 사업은 북 카페운영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제조 및 도소매 등이다.

## 2) 경기도 서해안

경기도 서해안 권역은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총 5개 도시로 구성된다. 지리적으로는 해상교통이 원활한 서해안에 인접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 도로를 기점으로 광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 (1) 김포시

<표17> 김포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7	-	7
2014	7	1	8
2015	12	-	12
2016	12	1	13
2017	3	2	5
2018	9	4	13
2019	10	4	14
2020	19	6	25
합계	79	18	97

2020년 12월 말 기준 김포시에는 97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그 중 일반협동조합이 79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8개소이다. 김포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김포시는 2017년까지 꾸준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증가했다.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이전 시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설한 협동조합 육성을 목표로 하였던 제1차 기본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 미비, 협동조합의 영세성 등으로 협동조합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었다.<sup>16)</sup> 물론 이러한 문제가 2017년에 갑자기 발현

16)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참조, 기획재정부(2016)

된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계속하여 협동조합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었었고 실제 경기도 및 전국 협동조합 설립 추이에서는 2013년 이후 2017년 제2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협동조합 설립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시기 김포시의 협동조합 설립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전국 단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김포시는 오히려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김포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 제도 초기 설립 개소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이 2017년에 이르러 정체를 맞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8개소가 설립된 2014년은 성남에서 이전한 1개소와 특허 관련 산업을 하는 1개소를 제외한 6개소가 농산물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2015년에 설립된 12개소 중에는 김포시 통진읍 및 대곶면 일대 산업 단지에 거소를 둔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학습 사업 관련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2016년에는 전체 13개소 중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학습 사업 관련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개소, 제조업과 농업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각각 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김포시는 도농복합시로,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서부 농촌지역일대에서 김포 쌀 등의 특산물과 서해, 한강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내 사업체 수 3위, 종사자 수 7위인 제조업 기반<sup>17)</sup> 특허 출원, 산업 표준 심사, 폐산 비철류 판매 등을 수행하는 산업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기계부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기반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차 기본계획 시기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특정 업종 기반 협동조합 설립 증가 추이는 2017년 들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 지역 농산물 및 생태자원, 제조업 기반 협동조합이 각 1개소 설립에 그쳤고 제2차 기본 계획 이후에는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고루 등장하였다.

---

17) 경기 통계(stat.gg.go.kr) 제조업 참조(2019)

전국적으로 보면 제2차 기본 계획 실행으로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생겨났고 정권교체 이후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기본법 제정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반등하였으며, 2017년 이후 김포시 또한 매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18년 9개소가 설립된 후 꾸준히 10개소 이상 설립 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 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0년의 일반협동조합 설립 건수 증가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10건이던 설립 건수가 19건으로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2020년 김포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산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만 10개소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 정책 발표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2020년 설립된 19개소 중 9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장 주소가 한 건물을 쓰고 있고 이사 구성과 조합 명칭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 추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혜를 염두하고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18> 김포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8	2	10
건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	1
제조업	11	1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5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	12
교육서비스업	11	4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2	10
농업, 어업 및 임업	8	2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	1
운수업	2	-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1	1	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	-	3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0
국제 및 외국기관	-	-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0
합 계	79	18	97

김포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순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농업, 어업 및 임업과 제조업의 경우 김포시의 주요 산업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제1차 기본 계획 시기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로도 매년 1~2개소씩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별 비율과 비교해보면 제조업과 농업 모두 경기도 전체 (사회적)협동조합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농업 11%, 제조업 12%로 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의 농업 및 제조업 비중이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김포공항과 수도권 순환 도로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2016년 해외관광객이 증가하며<sup>18)</sup>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현대백화점, 하나투어 등 관광 분야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고<sup>19)</sup> 김포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실제 2016년에 설립된 6개 교육서비스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3개소가 관광 또는 생태 프로그램 체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었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또한 마을 체험, 문화 전시 기획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2016년 이후로 7개소가 설립되었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노인 장기요양, 장례 서비스 등을 품

18) 「201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7백만 명' 기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6.12.26  
19) 「경기관광공사·김포시·하나투어 등 업무협약」, <국제뉴스>, 2016.06.23

목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개소,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돌봄 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돌봄 시설이 4개소로 주로 노인과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2) 시흥시

<표19> 시흥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9	1	10
2014	19	1	20
2015	16	2	18
2016	21	2	23
2017	17	8	25
2018	13	7	20
2019	14	12	26
2020	12	11	23
합 계	121	44	165

2020년 현재 시흥시에는 165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그 중 일반협동조합이 121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44개소이다. 특히 인구 15만 이하의 중소도시를 제외하면 오산시와 파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대비 일반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많으며<sup>20)</sup>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오산과 가평을 이어 세 번째로 인구대비 설립 건수가 많다. 시흥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제1차 기본 계획 이후 2017년까지 설립 건수가 감소하는 경기도 및 전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세와는 달리 2014년부터 매년 20개소 내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는 2014년 1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200개로 늘리고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하겠다고<sup>21)</sup>는 2014년 사회적경제 육성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실현을 위해 시흥시는 사회적경제

20) 오산시 2,875명당 1개소, 파주시 3,012명당 1개소, 시흥시 3,090명당 1개소

21) 「시흥시 사회적 경제기업 152개 일자리 4500개 늘린다」, <기호일보>, 2014.01.17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장독대 문화사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협의회 확대 구성을 통한 파트너쉽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공동 판매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sup>22)</sup> 이 결과 전국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감소하였던 2014부터 2017년까지 시흥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매년 20개소 내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한편 시흥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마을 동네관리소를 활성화하였는데, 동네관리소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와 해결방법을 탐색하고, 시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공간, 자금 등을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 문제 해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흥시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동네관리소는 집수리, 공구 대여를 비롯해 문화 예술 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 확장에 따라 법인형태의 운영이 필요하였다.<sup>23)</sup> 동네관리소는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모두 포함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부합하여 2017년부터 동네관리소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정왕1동과 정왕본동의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한국전력 인천지부의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주도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관리에 대한 공공성이 부각 되었고 동네관리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 휴게 시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주민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경로에 의한 지역 주민 주도 사회적협동조합이 2016년 이후 시흥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를 증가시켰다.

시흥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이어서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며 모든 업종에 대해 고르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시흥시, 시민친화적 사회적경제 만든다」, <중부일보>, 2014.01.24

23) 「시흥시, 우리마을 동네관리소 활성화」, <매일일보>, 2016.10.28

<표20> 시흥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9	2	21
건설업	8	1	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2	3
제조업	7	3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14	1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2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1
교육서비스업	31	4	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2	9
농업, 어업 및 임업	11	3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	1	6
운수업	6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	4
숙박 및 음식점업	9	1	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	4	7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	-	2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	2
합 계	121	44	165

시흥시의 (사회적)협동조합 중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곳은 35개로 시흥시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의 21%에 해당한다. 교육서비스업이 도매 및 소매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업종임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시흥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서비스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는 지역 시민 교육 정책의 영향이 컸다.<sup>24)</sup> 시흥시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시흥아카데미를 통해 일반시민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3년부터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sup>25)</sup> 시흥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시민 강사들은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교육, 방과후 교육,

24) 「진화 거듭 ‘시흥아카데미’ 지역거버넌스 모델 우뚝」, <뉴스1코리아>, 2015.10.14

25) 「시흥시,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강」, <기호일보>, 2013.06.17.

지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주민 복지 및 동네 관리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청소 및 경관 개선(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과 지역 주민 복지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해당 두 업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 복지 사업 분야에는 장애인 관련 재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이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흥시는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공동 책임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인 관련 재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체험홈,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온 마을이 장애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sup>26)</sup>

이렇듯 시흥시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은 활발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적었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설립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3) 안산시

<표21> 안산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1	-	1
2013	30	1	31
2014	28	1	29
2015	20	2	22
2016	14	2	16
2017	6	4	10
2018	18	5	23
2019	21	8	29
2020	14	8	22
합 계	152	31	183

2020년 현재 안산시에는 183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26) 「시흥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공동 책임 사회 조성 주력」, <이뉴스투데이>, 2021.05.25.

그 중 일반협동조합이 152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31개소이다. 안산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감소하다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 일반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시행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립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경기도 및 전국의 평균적인 협동조합 설립 추이와 같으며 제1차 기본계획 시기 시장경쟁력 부족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이가 감소하다가 2017년 정권 교체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시행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안산시에는 도매 및 소매업(18개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개소)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졌다. 도매 및 소매업은 협동조합 제도 초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설립된 업종으로 자본금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교육서비스업과 함께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다.<sup>27)</sup> 게다가 이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교육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협업 사업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이어졌다.<sup>28)</sup> 실제 이 시기 안산에서 설립된 도매 및 소매업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18개소 중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이 많았다.<sup>29)</sup>

이러한 소상공인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세는 2016년과 2017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주춤하다가 정권교체와 제2차 기본계획 시행이후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sup>30)</sup> 하지만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2019년과 2020년 다시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2013년에만 6개소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7년 동안 5개소 설립에 그쳤다. 단기적으로 설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27) 「협동조합 하루 평균 1.7개씩 설립」, <경기일보>, 2012.12.26.

28) 소상공인진흥공단(www.semas.or.kr)

29) 사업자, 생산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는 협동조합 유형

30)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사업자협동조합 설립 추이

정책이나 산업구조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기는 제3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설립연도와 유형, 업종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2> 안산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33	1	34
건설업	5	-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1	4
제조업	13	1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12	1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2
교육서비스업	27	6	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5	18
농업, 어업 및 임업	19	-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	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	2	11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	2
숙박 및 음식점업	4	1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1	2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152	31	183

안산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개소의 경우 경기도 협동조합(3,492개소)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GRDP(6.0%)와 인구 비중(4.8)과 비슷한 수준의 협동조합 설립 건수를 보이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안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어업 및 임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과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의 경우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들과 대부도 일대 포도,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가들의 체험농장, 공동판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 많았다.

#### (4) 평택시

<표23> 평택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0	1	11
2014	18	-	18
2015	19	2	21
2016	11	1	12
2017	7	3	10
2018	16	2	18
2019	16	4	20
2020	10	6	16
합 계	107	19	126

2020년 현재 평택시에는 126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그 중 일반협동조합이 107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9개소이다. 평택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2015년까지 꾸준히 설립이 증가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고 이후 2020년까지 연 18개 내외의 설립현황을 보인다.

제도 초기 평택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내역을 보면 교육서비스업(11개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개소), 도매 및 소매업(7개소)이 설립을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많이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항인 평택항이 있고 2013년부터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2013년부터 추진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황해 경제 자유구역,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

산업기반사업이 추진되며<sup>31)</sup> 무역협회, 보따리상인(소무역), 용역 사업, 청소업 등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설립되어 이 시기 평택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개소를 증가시켰다.

2016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및 전국의 설립 추이를 따라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추세는 감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한 창업 기반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으로의 설립이 감소하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다.

<표24> 평택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6	-	16
건설업	4	-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	2
제조업	11	-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	7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1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4
교육서비스업	17	6	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1	7
농업, 어업 및 임업	6	1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	1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	6
운수업	4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3
숙박 및 음식점업	12	-	1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107	19	126

평택의 협동조합은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3,492개소)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GRDP(7.9%)와 인구 비중(4.1%)에 비해 적은 수준의 (사회적)협동조합

31) 「문화예술로 “창조적 도시 평택’ 건설」, <경인일보>, 2013.02.05.

설립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GRDP의 경우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수치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많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경기도 평균(17.4%)에 비해 낮은 12.6%를 보이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각각 10.3%와 9.5%로 경기도 평균인 4.1%와 3.5%를 크게 넘어선 설립 추세를 보인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 구조와 관련이 있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택은 서해안을 인접해 있어 다양한 항구를 기반으로 해안가 근처의 숙박 및 음식점업이 발달해 있으며 매년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1~2개소 씩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 (5) 화성시

<표25> 화성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23	2	25
2014	21	5	26
2015	31	4	35
2016	19	1	20
2017	27	2	29
2018	24	5	29
2019	26	9	35
2020	20	5	25
합 계	191	33	224

2020년 현재 화성시에는 224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그 중 일반협동조합이 191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33개소이다. 화성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2016년을 제외하면 경기도와 전국 설립현

황과는 다르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5개소에서 35개소 사이의 고른 설립현황을 보인다.

화성시의 경우 체인식 시장 시기인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을 보여왔다.<sup>32)</sup> 특히 시 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성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계획 및 추진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를 추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농·어업인 단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하였다.<sup>33)</sup> 또한, 학교급식, 공공기관 시설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법인 택시 허가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였고, 실제로 2013년과 2015년 사이 농업, 어업 및 임업, 운수업(택시), 숙박 및 음식점업(급식),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공공기관 시설관리, 생활폐기물 운반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초기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sup>34)</sup> 그 결과 화성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화성시는 2014년부터 시의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였고 2019년에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비율을 보인다.<sup>35)</sup> 시정 차원에서도 체인식 시작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계획 이후 서철모 시장이 취임하며 사회적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명칭변경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각 부문별 성장지원에 힘쓰고 있다. 화성시는 공유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에 힘쓰는 등 시의 행정과 의회 모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sup>36)</sup> 화성시는 수년간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사회적경제 친화도

32) 「화성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찬회 가져」, <경기일보>, 2012.02.20

33) 「화성시 농·어업인 단체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 <뉴스스>, 2013.01.20

34)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모집 시민 공청회 공모」, 아시아투데이, 2014.08.21.

35)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발표(4.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0&search\\_word=%EA%B3%B5%EA%B3%B5%EA%B5%AC%EB%A7%A4&board\\_code=BO06&search\\_type=&category\\_id=CA90&category\\_sub\\_id=SC12&magazine=&title=&selectyear=&pg=&seq\\_no=245535](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0&search_word=%EA%B3%B5%EA%B3%B5%EA%B5%AC%EB%A7%A4&board_code=BO06&search_type=&category_id=CA90&category_sub_id=SC12&magazine=&title=&selectyear=&pg=&seq_no=245535)

36) 「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원 지원」, <매일일보>, 2021.02.23.

시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제3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대상을 받았다.<sup>37)38)</sup>

<표26> 화성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35	-	35
건설업	5	-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	1
제조업	21	-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	5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2	7
교육서비스업	32	10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	2	23
농업, 어업 및 임업	25	-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2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9	15
운수업	8	-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	2
숙박 및 음식점업	12	-	1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	1	4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191	33	224

화성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개소의 경우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3,492개소)의 6.41%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비중(6.3%)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를 보인다. GRDP의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화성에 속함에 따라 경기도 전체의 18.1%의 비중을 보여 단순 수치상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37) 「화성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돼」, <뉴스투데이>, 2020.11.27.

38)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화성시, 고용노동부 주관 평가에서 대상 수상」, <한스경제>, 2021.07.02

업종별 현황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도 초기 화성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었던 농업, 어업 및 임업 부문과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설립이 눈에 띄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사이 19개소가 설립되었는데 국내 2호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비롯하여 꿈의 학교 운영 등 교육부를 통한 교육 주요 주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이 활발해 짐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많아지고 있다.<sup>39)40)</sup> 실제 교육서비스업 (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까지 23개소로 농업, 어업 및 임업 22개소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년 사이 19개소가 설립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2020년 이후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세가 감소하였다. 이 역시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7년 경쟁력 약화로 인해 설립 추세가 감소했던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

39) 「이재정 경기교육감 “꿈의학교 협동조합으로 나아가야”」, <이로운넷>, 2021.05.21.

40) 「“협동조합 지역단위까지 확대될 것” 기재부 이어 교육부도 활성화 바람」, <브릿지경제>, 2016.02.24.

### 3) 경기도 남부

경기도 남부 권역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등 총 11개 시가 포함되어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만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등 무려 4개 도시가 해당된다.

#### (1) 수원시

<표27> 수원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40	9	49
2014	37	3	40
2015	39	2	41
2016	28	6	34
2017	21	4	25
2018	31	15	46
2019	29	12	41
2020	35	13	48
합 계	260	64	324

수원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에 가장 많은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 2015년에도 35개 이상의 일반협동조합이 꾸준히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조합원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의 최소기준도 없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분야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언론보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YTN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붐물'..과제는? 이란 뉴스를 보도했으며, 기호일보에서도 경기 전역 협동조합 설립 신고 '붐물'이라는 기사를 송출했다.<sup>41)</sup>

2015년 5월에는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수원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물론 2011년 9월부터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sup>42)</sup>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협동조합 설립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는데,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sup>43)</sup> 조사결과 설립된 협동조합 중 44.5%가 휴·폐업 상태이며, 운영중인 협동조합도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내용은 협동조합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수익모델과 자원 확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018년부터 다시 일반협동조합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sup>44)</sup>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 금융·판로·인재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할 것에서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10개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등 협동조합의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 점, 나아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분야로 구분하여 창업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 예비 창업자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41) YTN에서는 2012년 12월 1일 뉴스가 보도 되었으며, 기호일보에서는 2012년 12월 17일 기사가 송출되었다.

42)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연합뉴스>, 2015.05.29

43)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협동조합 제2차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44)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기획재정부(2020)

<표28> 수원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60	1	61
건설업	7	1	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5
제조업	25	3	2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	17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	18
교육서비스업	55	19	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5	31
농업, 어업 및 임업	8	1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	6	19
운수업	4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1	2
숙박 및 음식점업	7	2	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2	-	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1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2	3
합 계	260	64	324

수원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대표적으로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판매 등 비용절감과 사업의 규모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현황에서도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5)</sup>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타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설립 건수가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제과제빵, 도시락, 즉석식품 등 대체로 소규

45)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블로그 참조(<https://blog.naver.com/seoulcoopcenter/222467090296>)

모 제조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단연 많은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방과 후 학교, 경기도 꿈의 학교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심리상담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혜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구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다.

## (2) 성남시

<표29> 성남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40	6	46
2014	35	1	36
2015	29	4	33
2016	29	6	35
2017	25	18	43
2018	19	4	23
2019	14	8	22
2020	18	6	24
합 계	209	53	262

성남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5개 이상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이상 설립되었다가 2018년부터 20개 미만으로 설립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년여 만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협동조합 100개를 돌

파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sup>46)</sup>

비단 협동조합만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성남시 사회적기업은 총 54개소로 2015년 15개소 인증으로 정점을 찍고, 2016년 10개소,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 2019년 3개소, 2020년 5개소 등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sup>47)</sup>

2011년 6월 성남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 등 성남 시민기업과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해 성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판로, 네트워킹,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초기부터 활발히 추진된 만큼 타 지역에 비해 발굴 숫자가 감소하고, 정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및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촉구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으며, 제2의 성남시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주문하고 있다.<sup>48)</sup>

사회적협동조합은 2017년 18개가 설립되는 등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 교육서비스업(6개소)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개소)이 총 11개소로 61%를 차지하며,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요건으로 하여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맘모아 사회적협동조합, 서로 사회적협동조합, 분당수지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아이행복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성남시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46) 「성남시, 협동조합 100개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4.11.26

4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리스트 참조

48) 「서은경시의원, 성남시 ‘사회적경제과’ 신설 강력 촉구」, <성남데일리>, 2020.09.03

<표30> 성남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42	2	44
건설업	6	3	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	2
제조업	14	2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15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1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	16
교육서비스업	34	16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4	17
농업, 어업 및 임업	4	-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3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	3	19
운수업	3	-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1	9
숙박 및 음식점업	6	-	6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6	-	16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1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209	53	262

성남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이 뒤를 따르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시민기업에 청소대행을 위탁하고 있으며, 공공 고용서비스 분야에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있다.<sup>49)</sup> 이 때문에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에 협동조합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뿐만 아니라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49) 「성남시 ‘시민주주기업’ 각광받고 있어」, <성남투데이>, 2011.07.08

시민주주기업은 성남시 자체방침으로 해당사무 실제종사자의 70% 이상이 성남시 1년 거주 이상 성남시민인 동시에 주주이어야 하며, 1인당 주식을 20% 이하로 소유하고, 서비스 수혜자와 취약계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구성하고, 출자금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민주주기업과 거의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도 협동조합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총 16개소 중 9개소가 ICT관련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공급, 영상물 제작 및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IT·BT·CT·NT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ICT관련 인프라가 성남시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에 있어서 협동조합 업종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방과 후 학교, 경기도 꿈의 학교 등의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 (3) 부천시

<표31> 부천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34	-	34
2014	20	1	21
2015	24	6	30
2016	15	5	20
2017	8	2	10
2018	23	6	29
2019	19	9	28
2020	11	11	22
합 계	154	40	194

부천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에 34개소가 설립되어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 21개소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5년에 30개소가 설립되는 등 연도별 증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대비 2017년 50% 이상 설립이 감소하면서 가장 낮은 설립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시 2018년도에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설립이 증가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편차가 크게 발생한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부분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교육방식을 변경했는데, 이전보다 교육횟수를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창업을 연계시켜 단비기업 등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설립개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에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며, 상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천시는 2011년부터 민간위탁사업 중 사회적기업 전환 대상을 발굴하고, 유한대를 거점으로 연계형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만수 부천시장은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은 경제문화운동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운동이라며 부천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sup>50)</sup>

2015년 1월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범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2017년부터 부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업을 발굴하는 단비기업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과 운영경비 및 사업모델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감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조정기간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꾸준한 증가세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구매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민간위탁 시장 진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뒤에서 업종별 설립현황을 통해 확인하겠다.<sup>51)</sup>

50) 「[인터뷰] 김만수 부천시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천국으로”」, <내일신문>, 2011.08.31

51)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윤기영 센터장은 더스쿠프와의 인터뷰에서 부천시에 협동조합이 크게

<표32> 부천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40	1	40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2	4
제조업	8	2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15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1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	5
교육서비스업	27	14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1	15
농업, 어업 및 임업	6	1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1	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	1
운수업	10	1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	3
숙박 및 음식점업	5	-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4	-	4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1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1	1
합 계	154	40	194

부천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 41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 40개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개소 순으로 이들 3개 업종이 전체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업종의 진입장벽이 낮고, 특히 교육서비스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점은 수원시, 성남시의 사례처럼 민간위탁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교육을 주요사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5명만 모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생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부천시만 해도 지금 130~140개의 협동조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 30개 남짓이며, 지원금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 오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기영 센터자의 역설적 희망歌] “난 사회적경제팀이 없어지길 바란다”」, <더스쿠프>, 2018.08.02

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한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sup>52)</sup>

운수업의 경우 택시, 대리기사, 전세버스, 사다리차, 굴삭기, 포장이사 등 다양한 운수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설립개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천시는 자동차 매매단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등 운수업 산업구조가 발달해 있는 편이고, 부천개인택시조합, 부천법인택시연합회, 부천택시노동조합 협의회 등 택시운송업체 간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지역사회 내 운수업과 운수업 종사자들 간 조직화가 되어 있는 만큼 운수업 협동조합의 설립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4) 안양시

<표33> 안양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4	3	17
2014	24	2	26
2015	13	2	15
2016	12	5	17
2017	18	1	19
2018	20	3	23
2019	11	3	14
2020	6	5	11
합 계	118	24	142

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적협동조합 모형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4년에 26개소가 설립되는 등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후 감소하다 다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건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4개소~19개소 등 비슷한 규모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2~3개 안팎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3~2014년에는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빠르게 설립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으며, 다시 감소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진정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2012년 안양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고, 2016년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출범했다. 2018년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교육장, 창업실, 전시·홍보를 겸한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센터 이전을 통한 사업 확대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건수가 늘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6년과 2020년 각각 5개소가 설립되었는데 특히 2020년 설립된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관리 등 공공서비스 위탁운영을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표34> 안양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34	1	35
건설업	3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	1
제조업	8	3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8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	8

교육서비스업	27	6	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2	10
농업, 어업 및 임업	5	2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2	8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	2
숙박 및 음식점업	1	-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2	-	2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118	23	142

안양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 순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타 지자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협동조합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에는 방과 후 학교, 경기도 꿈의학교 등 민간위탁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개소 활동하고 있다.

제조업은 사업자협동조합이 대부분이며 옥외광고, 인테리어, 의류제품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5) 용인시

용인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20개소 이상 설립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 협동조합 설립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하면 용인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35> 용인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24	2	26
2014	11	1	12
2015	23	6	29
2016	22	2	24
2017	18	2	20
2018	12	7	19
2019	16	8	24
2020	25	6	31
합 계	151	34	185

일반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20개소 미만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다시 2020년에 25개소가 설립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 6개소가 설립되었고, 이후 2016년, 2017년 각각 2개소 설립으로 주춤했다가 2018년에 7개소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2015년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용인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의 용인시청 1층 공간에서 별도 독립공간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확대할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기업가들에게 센터에서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 중 교육협동조합이 총 4개소 설립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함께 참여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협력적 교육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2016년에 설립된 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쿵,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sup>53)</sup>

<표36> 용인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34	-	34
건설업	3	1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2
제조업	11	2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8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2	14
교육서비스업	28	15	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1	15
농업, 어업 및 임업	12	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2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1	9
운수업	2	-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	7
숙박 및 음식점업	5	-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151	34	185

용인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및 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용인시는 2015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민간기업들을 공모해 위탁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업 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서비스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다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2015년에 10개소가 설립된 상황과 이들이 대부분 방과 후 교육 위탁운영, 청소년 대상 교육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sup>54)</sup>

53) 「[교육이 미래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학교·마을 함께 운영하는 공익사업 ‘학생중심 교육복지 실현’」, <중부일보>, 2019.07.31

한편, 상대적으로 농업, 어업 및 임업분야 협동조합도 많이 설립되었는데, 용인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전원도시로 로컬푸드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sup>55)</sup>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등 로컬푸드 인프라를 늘리고, 대형마트 판매코너 입점 등 접근성 제고와 식품 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운영, 로컬푸드 교육, 농촌체험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농업분야 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 (6) 광명시

<표37> 광명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2	-	12
2014	17	-	17
2015	2	-	2
2016	8	-	8
2017	11	2	13
2018	3	1	4
2019	8	2	10
2020	10	4	14
합 계	71	9	80

광명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4년에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연도별로 설립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사회적기업도 총 9개소가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광명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소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현장지원과 경영자문, 사회적경제기업가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홍보 및

54) 용인시에 설립된 교육서비스업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2013년 5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0개소, 2016년 5개소, 2017년 5개소, 2018년 6개소, 2019년 4개소, 2020년 6개소가 설립되었다.

55) 「용인시 '로컬푸드' 성공비결은?」, <헤럴드경제>, 2015.09.08

인지도 확대, 판로·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를 개설하고, 양기대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광명시를 사회적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현황만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다.<sup>56)</sup>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9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38> 광명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9	-	9
건설업	1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5	1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3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	6
교육서비스업	17	2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	5
농업, 어업 및 임업	3	-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	-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1	2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	4
숙박 및 음식점업	2	-	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1	-	1
국제 및 외국기관	-	1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70	9	80

56) 「광명시, 일자리·신산업 창출하는 ‘협동조합 시대’연다」, <경기일보>, 2012.11.21

광명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연도별 2~3개씩 설립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의류유통, 미용사업 등이며,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도서, 휴대폰,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전형적인 서울 위성도시로서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직장을 다닌다. 협동조합 업종을 보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드러낼만한 산업구조를 찾기 어려우며, 향후 광명시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나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구조에 맞는 협동조합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군포시

<표39> 군포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7	1	8
2014	4	-	4
2015	4	-	4
2016	4	1	5
2017	-	2	2
2018	3	1	4
2019	2	1	3
2020	3	-	3
합 계	27	6	33

군포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에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연도별로 2~5개 수준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2019년에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육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네트워

크 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사회적경제협의회가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군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협동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sup>57)</sup>

<표40> 군포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4	-	4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3	-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2
교육서비스업	4	3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	2
농업, 어업 및 임업	3	-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	2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2	-	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27	6	33

군포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소수로 분포되어 있어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하

57) 「군포시 사회적경제조직들, 지역사회공헌 본격화... 착한나눔기업에 기업들 첫가입」, <중부일보>, 2019.11.20

기 어렵다.

교육서비스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소가 있는데 이들 모두 방과 후 교육, 자유학기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관상어 판매, 교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업, 어업 및 임업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8) 안성시

<표41> 안성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7	-	7
2014	4	1	5
2015	10	1	11
2016	7	-	7
2017	10	-	10
2018	4	-	4
2019	2	2	4
2020	5	4	9
합 계	49	8	57

안성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5년에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18년에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가 다시 2020년에 9개소가 설립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연도별 설립편차가 큰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추세다. 2014년에 설립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성의료생협으로 활동하다 조직변경을 한 사례이며, 2019년~2020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5개는 주사업목적이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안성시 사회적경제의 전환점은 2020년 4월 16일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시장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안성의료생협 초창기 설립멤버로

이후 전무이사를 역임했고, 한국사회적경제중앙협의회 이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시장 취임 이후 그의 공약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안성맞춤공익지원센터 설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sup>58)</sup> 특히 안성맞춤공익지원센터를 통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출범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를 3개팀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sup>59)</sup>

<표42> 안성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6	1	7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	2
제조업	4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1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1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	1
교육서비스업	3	1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	6
농업, 어업 및 임업	15	-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	1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1	1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49	8	57

58) 안성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시민과의 약속 참조

<https://www.anseong.go.kr/mayor/contents.do?mId=0610040000>

59) 김보라 시장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boracoop/222320199152>

안성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농업, 어업 및 임업이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보다 소수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주로하고 있으며, 이 밖에 로컬푸드 판매, 치유농장 체험, 귀농귀촌 관련 교육 등 농업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을 법인 명칭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봉황산구절초협동조합, 안성아로니아협동조합, 안성시 복숭아협동조합, 고려인삼 유기농 협동조합, 안성블루베리협동조합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한살림생협에서는 2012년에 안성시에 친환경물류센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한살림 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한살림운송협동조합과 한살림물류센터에서 냉동과 소포장 작업 등을 하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한 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 (9) 의왕시

<표43> 의왕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3	-	3
2014	2	-	2
2015	2	3	5
2016	5	1	6
2017	2	1	3
2018	4	1	5
2019	1	3	4
2020	2	3	5
합 계	21	12	33

의왕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매년 3~6개 (사회적)협동조합이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인접해 있는 군포시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협

동조합 수는 동일하나 군포시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비율이 18%인 반면, 의왕시는 36%로 2배 이상 높다.

경기도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왕시 기업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단체)관리,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 운영, 사회적경제 일반업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및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sup>60)</sup>

한편 시에서는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로서 다가치 의왕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의 사회적경제 게시판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확산에 필요한 정보전달과 컨설팅 등의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표44> 의왕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9	-	9
건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1	-	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	4
교육서비스업	3	1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농업, 어업 및 임업	2	-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	1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3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21	12	33

60) 의왕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uiwang.go.kr/UWKORINTRO0301/4030215>

의왕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분포되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절반이상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에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2개소가 설립되었고, 2019~2020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유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혜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중 1개소는 의왕시의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sup>61)</sup>

#### (10) 오산시

<표45> 오산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4	1	5
2014	3	-	3
2015	13	-	13
2016	7	1	8
2017	11	3	14
2018	10	3	13
2019	3	8	11
2020	4	9	13
합 계	55	25	80

오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7년에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일부 감소하고 있지만 꾸준히 설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1) 「의왕시 ‘개똥이네 협동조합’에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인천일보>, 2020.8.26

일반협동조합은 연도별로 설립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에 2배 이상 설립이 급증했고, 2020년에도 설립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오산시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적극 추진했으며,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대상은 총 6개소로,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부모·교사·원장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시 관계자 또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sup>62)</sup> 실제 2019년에만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던 5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오산시는 2016년 11월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오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등 특화협동조합 설립지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46> 오산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3	2	5
건설업	1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2	3
제조업	6	-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14	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1
교육서비스업	11	5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	5
농업, 어업 및 임업	1	-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	3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62) 「(오산시/경기도청)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교육(7월)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2019.07.25

숙박 및 음식점업	10	1	1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	1
합 계	55	25	80

오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이며, 3개 업종이 전체 업종의 57.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산시 차원에서 진행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사업과 더불어 2020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다.

오산시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타지자체에 비해 설립개수도 많고, 비율도 높은데, 오산시는 2015년 오산대와 O&O커피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 카페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오산시는 공공기관 유휴 공간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입점시킴으로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총 5개소 입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sup>63)</sup>

2015년 총 7개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중 카페운영을 하는 협동조합이 4개소로 지원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11개소 중 7개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11) 과천시

63) 「오산시, ‘사회적 경제 카페’ 창업 지원」, <시사포커스>, 2015.03.24

<표47> 과천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0	2	12
2014	7	-	7
2015	2	1	3
2016	4	-	4
2017	9	-	9
2018	3	1	4
2019	3	1	4
2020	2	1	3
합 계	40	6	46

과천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에 가장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3~4개소 수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과천시에서도 협동조합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고, 과천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을 활용한 사업전략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과천시의회 여성정책연구모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sup>64)</sup>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설립 건수가 증가했는데, 눈여겨 볼 지점이 총 9개소 중 4개소가 화훼상품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과천시 주암동 일대 묘목단지가 2015년 뉴스테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한국묘목협동조합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묘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용인시에 신청했고, 용인시에서는 조건부로 승인해 과천 지역 화훼, 묘목업체 400곳이 처인구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원예유통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sup>65)</sup>

64) 「과천시 소자본 창업 교육」, <인천일보>, 2013.10.16.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과천시의회 28일 간담회」, <경기일보>, 2013.09.24.

65) 「용인시, 국내 최대 ‘원예유통단지’ 조성 급물살」, <경기일보>, 2017.03.09.

그러나 이전을 하지 않은 과천시 지역 화훼업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020년에 과천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48> 과천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6	-	16
건설업	-	1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2	-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1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2
교육서비스업	12	2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	2
농업, 어업 및 임업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1	1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	1
숙박 및 음식점업	4	-	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40	6	46

과천시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이며, 2개 업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소수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17년에 화훼분야 사업자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처럼 과천시는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으로 화훼산업이 발달한 곳이다.<sup>66)</sup> 자연

스레 업종에 있어서도 도매 및 소매업 중 6개소가 화훼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과천시 산업구조가 협동조합의 설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서비스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업종의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하기 쉬운 분야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5개소, 2018년에 3개소가 설립되었으며, 이외에는 1~2개소 정도로 설립되고 있다. 교육의 콘텐츠도 뚜렷하게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고, 과학콘텐츠, 인문학, 창의놀이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

66) 「과천시 대표적 꽃축제 ‘화훼전시회’ 개막」, <아주경제>, 2017.05.24.

#### 4) 경기도 북부

경기도 북부 권역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총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 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 현황도 차이가 있는 독특한 권역이라 할 수 있다.<sup>67)</sup>

##### (1) 고양시

<표49> 고양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1	-	1
2013	35	1	36
2014	39	2	41
2015	31	3	34
2016	32	3	35
2017	16	1	17
2018	18	7	25
2019	25	10	35
2020	24	11	35
합 계	221	38	259

고양시 (사회적)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본격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2012년에 협동조합 1개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고양시 혹은 고양시민들의 관심도가 꽤나 높았다는 것을 반증할 만 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2년도 협동조합 설립 실적이 있는 곳은 고양시와 안산시 단 두 곳뿐이다.

고양시는 2013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3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

67) 고양시 108만 896명, 동두천시 9만 3,414명, 양주시 23만 5,828명, 연천군 4만 2,942명, 의정부시 46만 3,373명, 파주시 47만 6,044명, 포천시 14만 8,296명.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21년 8월 기준) 참조

립되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 설립 요건이 간단하고(조합원 5명 이상, 자본금 규모 없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당시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영리법인 중 협동조합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주식회사라는 대안도 있지만 주식회사는 2009년 2월 상법개정 전까지는 최소자본금 5천만으로 정해져 있었고, 해당 설립 요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던 바, 법 개정 이후에도 주식회사 설립에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아무런 자본금 규모를 정해놓고 있지 않은 협동조합은 창업을 준비하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법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고양시에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2012년에 개소한 고양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現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인다. 고양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빠르게 고양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산하)를 개소하였고,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지역 내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왔다.

반면 동 기간(2013년~2016년) 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건수 비교했기 때문이고 전체적인 경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이를 봤을 때에는 고양시의 설립 추이는 평균값에 근사하며, 딱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고양시의 협동조합 설립 건수는 2017년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며 급감한다. 이는 2018년 2월 발표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등기를 완료한 협동조합 중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3.4%로 2차 조사 결과(54.6%)보다도 소폭 감소하였으며, 평균 자산 및 매출액 등은 2차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평균 당기순이익이 1/2규모로 크게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sup>68)</sup>

설립요건이 간단하여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을 강점으로 하여 양적팽창을 해

---

68)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2020)

오던 협동조합이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인해 설립 건수의 하락세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18년부터 이전만큼은 아니나 협동조합 설립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눈여겨볼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의 증가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매해 최대 3개 이상이 설립되지 않던 고양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2018년 7개소, 2019년 10개소, 2020년 11개소가 설립되며 큰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2017.5.~)의 출범과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 이후 협동조합 생태계의 한계점 중 하나로 협동조합의 낮은 자생력과 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우호적 환경조성 필요 등을 들었으며, 이러한 한계점의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책의 하나로 꼽았다.<sup>69)</sup>

이에 발맞춰 고양시의회는 서울, 성남 등을 벤치마킹하며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한바 있다.<sup>70)</sup> 특히 2018년에 들어서는 고양시 청년 소셜 벤처 서포터즈 1기 운영, 사회적경제 꿈길마켓 추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sup>71)</sup> 이러한 고양시의 다각적 노력으로 2018년 이후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반등할 수 있었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된 경기 꿈의학교 신청대상이 개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 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표3>고양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도 볼 수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고양시내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중 가장 많은 업종이 바로 교육서비스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정책 운영 방향성과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양

69)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기획재정부(2016)

70) 「고양시의회, 서울-성남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부일보>, 2017.11.20.

71)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나선 고양시] 창업서 판로 지원까지… 사회적기업 제도적 육성」, <경기일보>, 2018.05.28.

시내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50> 고양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86	1	87
건설업	1	1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2
제조업	6	3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	12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0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1	9
교육서비스업	60	13	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2	4
농업, 어업 및 임업	15	0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1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3	7
운수업	6	0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0	3
숙박 및 음식점업	5	0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5	0	5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221	38	259

고양시 사회적협동조합 중 교육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업종은 바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고양시의 해당업종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sup>72)</sup> 한국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1994년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결성을 그 시초로 한다. 이후 풀뿌리 운동의 형태로 번져나갔으나,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에 기초하여 신고·인가받은 협동조합 외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자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영위하던 임의단체들이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신규 설립하게 되었다.<sup>73)</sup>

72)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각종 사회 조직과 집단·국가가 육아의 공동 책임자로서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두산백과)

고양시에는 현재 총 4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4개소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sup>74)</sup> 지역 주민들의 시민운동이 제도화를 거치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까지 이어진 독특한 형태라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뒤를 교육 서비스업, 농업·어업 및 임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순서대로 잇는다. 도매 및 소매업 또한 교육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전문적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점, 별도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로 여러 업종 중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눈에 띄는 것은 농업·어업 및 임업 분야가 고양시 전체 협동조합 분포의 3번째라는 점이다. 고양시는 일산을 필두로 도시화가 진행된 곳도 있으나 벽제, 송포 지역 등은 여전히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일부 반영되어 농업·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수가 전체의 세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3순위에 해당하는 업종이지만 도매 및 소매업(87개소)과 교육 서비스업(73개소)이 전체의 절반(약 62%)을 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라 보기는 어렵다.

## (2)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2013년 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협동조합 2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 총 24개소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2.7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그 중 2015년이 6건으로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가장 많다. 2015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각각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어업 및 임업, 건설업, 제조업으로 모두 업종이 달랐으나 눈에 띄는 공통점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자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sup>75)</sup>

73)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뿐 아니라 조직의 상황에 따라 민법상 임의단체의 형태로 설립·운영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음

74) 2021.09. 기준(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gongdong.or.kr)

75) 협동조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유형 중 사업자(혹은 생산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는 협동

<표51> 동두천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2	-	2
2014	2	1	3
2015	6	-	6
2016	3	-	3
2017	1	-	1
2018	2	-	2
2019	2	-	2
2020	4	1	5
합 계	22	2	24

이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함께 모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시기(2012~2016년) 전국 협동조합 분류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사업자 협동조합이 차지(전체의 약 70%)한다.<sup>76)</sup>

<표52> 동두천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5	-	5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4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1
교육서비스업	2	1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	3
농업, 어업 및 임업	1	1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조합으로 보통 사업자(주로 중소 사업자)들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76)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20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
운수업	1	-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1	-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20	2	22

동두천시의 업종별 설립현황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사업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제조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사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조업의 경우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역 중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동두천시의 경우 2019년 5월에 돼서야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2021년 9월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구수 및 지자체의 높지 않은 사회적경제 관련 관심도 등이 동두천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에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양주시

<표53> 양주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2	-	2
2014	6	1	7
2015	6	-	6
2016	5	4	9
2017	2	-	2
2018	-	1	1

2019	10	3	13
2020	10	2	12
합 계	41	11	52

양주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미비하였으나,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3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2년 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매우 저조하였고 2019년에 들어 다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양주시는 2014년 11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민관의 관심도를 제고한바 있다.<sup>77)</sup> 이어 2015년 6월에는 창업협동조합 교육과정을 개강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2015년 12월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sup>78)</sup> 한편, 2015년 4월에는 양주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인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가 창립되었다.<sup>79)80)</sup> 이러한 민관의 적극적 관심으로 경기북부에 치우쳐있는 지리적 한계와 경기도내 비교적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꾸준한 협동조합 설립 추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에 들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급감한 것 역시나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81)</sup> 다만 한 가지의 문인 것은 2017년 10월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역시 협동조합 설립이 저조하였다는 점이다.<sup>82)</sup>

하지만 2019년, 양주시가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공공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시키면서 분위기가 다시 반등된 듯하다.<sup>83)</sup> 2019년과

77) 「양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일보>, 2014.11.17.

78)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창업협동조합 교육과정 개강」, <아주경제>, 2015.06.17.

79)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는 2015년 당시 양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21개 기업 대표들로 구성되어 창립되었다.

80)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본격적 활동 시작」, <경기일보>, 2015.04.14.

81)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는 고양시 분석에 작성하였으므로 양주시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82) 양주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yangju619/221124526833>)

83) 「[기획보도] 양주시! 新 성장동력 유치로 일자리 창출한다」, <브레이크뉴스>, 2019.01.26.

2020년 모두 10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또한 2019년 11월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예상된다.<sup>84)</sup>

<표54> 양주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0	-	10
건설업	2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	3
제조업	2	2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4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교육서비스업	7	3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	4
농업, 어업 및 임업	4	-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	2
운수업	3	-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2	-	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1	1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40	9	49

다만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업종별 설립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양주시의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은 <표52>로 확인할 수 있다.

#### (4) 연천군

84)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https://www.yangju.go.kr/secenter/index.do>)

<표55> 연천군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	-	-
2014	2	-	2
2015	2	-	2
2016	4	-	4
2017	5	-	5
2018	6	-	6
2019	4	1	5
2020	7	1	8
합 계	30	2	32

연천군은 경기북부 권역 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2013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전혀 없었으며, 2014년에 들어서야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설립건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독특한 점은 2019년 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기북부 권역이 2016년~2017년 사이에 한번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감소세를 보이는데 연천군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설립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변동추이를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9년에 1개소, 2020년에 1개소가 설립되었는데 2019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중학교에서 설립한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며, 2020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연천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재미있는 점은 두 조합 모두 정책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먼저 일명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라 불리는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교내 매점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한다. 이 때 매점 운영을 교육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에 어울림공간 조성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어오던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천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렇듯 연천군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제도의 뒷받침아래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결속력은 다소 약했다고 보인다. 물론 기 설립된 두 곳의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조합원들의 자유의지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설립의 바탕에 정책 시행이 함께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

<표56> 연천군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	-	1
건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	-	8
제조업	4	-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1
교육서비스업	-	1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	4
농업, 어업 및 임업	3	1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3	-	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	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30	2	32

연천군의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해당 협동조합들은 모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2015년 1개소, 2017년 2개소, 2018년 1개소, 2019년과 2020년 각각 2개소씩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천군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들과 맞물린다. 먼저 2015년과 2016년에는 K-water 임진강건설단이 약 9천만 원을 지원해 연천군 군남면 옥계2리, 왕림리, 노동리, 중면 황산리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였다.<sup>85)</sup> 또한 2017년에는 연천군 군남면 황.남계리 환경사업소의 약취와 경기LPC 인근 주민들의 피해호소로 인해 남계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6가구와 황지리 마을단위지원 사업 22가구가 수혜가구로 선정돼 태양광지원 사업을 다음해인 2018년9월에 착공해 당해 11월에 준공한바 있다.<sup>86)</sup> 이러한 지역적 이슈들과 정책들이 맞물려 태양광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지역주민 주도로 만들게 되면서 민주적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

#### (5) 의정부시

<표57> 의정부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1	-	11
2014	4	1	5
2015	11	-	11
2016	1	1	2
2017	11	2	13
2018	10	2	12
2019	7	2	9
2020	8	3	11
합 계	63	11	74

의정부시의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본격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설립이 본격화 된 첫해에 설립된 건수가 역대 최대 설립 개수와 같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협동조합 붐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당시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에는 하루 평균 1.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85) 「연천 중면황산리마을회관 태양광설비준공식」, <경인일보>, 2016.10.06.

86) 「경기도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내외뉴스통신> 2021.05.07.

되었다고 한다.<sup>87)</sup>

의정부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매해 증가와 감소를 극단적으로 반복하는 독특한 형태를 띄우다가 2017년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년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조금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조례 시행 및 센터 개소 전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소문과 정보 등에만 의존하던 협동조합 설립이 의정부시의 정책시행 아래 제도권으로 들어 오면서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닌가 싶다.

<표58> 의정부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9	-	9
건설업	2	1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제조업	9	-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3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	3
교육서비스업	8	3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1	8
농업, 어업 및 임업	1	-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2	3
운수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6	-	6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1	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56	10	66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이 가장

87) 「협동조합 하루 평균 1.7개씩 설립」, <경기일보>, 2013.12.26.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사업이 그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것은 제조업의 분포가 가장 많다는 점인데 이는 의정부시의 사업구조와는 조금 반대되는 형태이다. 2016년 의정부시의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쳤는데 그 이유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다.<sup>8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어떤 이유로 제조업이 많이 분포해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의정부시의 협동조합들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은 떡, 쌀 찌빕, 생활용품, 절임배추 등 비교적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시설과 공장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보다는 음식 등의 제조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제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평가를 내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 첫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추이를 보인다. 독특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정책적 흐름이나 제도와 관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 (6) 파주시

파주시는 2013년부터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3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될 정도로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설립이 조금 줄었다가 2018년부터는 매해 2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의정부시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경기북부 권역에서는 고양시 다음으로 많은 협동조합 설립되어 있다.

88) 「향후 100년을 바라본 의정부시의 일자리 정책」, <일요신문>. 2019.05.30.

<표59> 파주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18	3	21
2014	16	-	16
2015	7	1	8
2016	7	4	11
2017	10	1	11
2018	22	3	25
2019	29	4	33
2020	21	10	31
합 계	130	26	156

파주시와 의정부시의 차이점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책적 움직임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2012년 파주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現 파주시 사회적경제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전개하였고, 2013년 4월에는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 이른다. 비슷한 인구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책 개시시점에 따라 양적 성장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결사체이지만, 한국의 경우 법제화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주시와 의정부시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센터 설립, 조례 제정 등의 협동조합 육성 정책이 협동조합 생태계 구성에 필요조건은 아니겠으나 충분조건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건수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0년에 전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설립건수의 급작스런 증가는 제도와 맞물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독특하게도 파주시의 경우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도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표60> 과주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6	1	17
건설업	1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	-	10
제조업	15	3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8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3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3
교육서비스업	14	4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4	22
농업, 어업 및 임업	11	1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1	7
운수업	5	-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7	-	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	-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127	26	153

과주시의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순서대로 분포하고 있다.

과주시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는 고양시와 북한산에 가로막혀 있어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 이렇다보니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 과 문화 향유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지역적 수요와 움직임이 컸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단 서울시와의 접근성 뿐 아니라 경기도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문화격차 또한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은 “경기 남·북부 문화격차 심각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문화시설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sup>89)</sup>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과주시에는 대규모 공연장·컨벤션이 가

능한 공간이 없어 파주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민의 문화차별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1년 (사)한국예총 파주지회장으로 당선된 이상주 회장은 인터뷰 중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지역 간 예술문화격차 해소를 사명과 같이 여기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욕구가 굉장했다는 것을 협동조합 업종별 설립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sup>90)</sup>

이 외에도 출판도시라는 별명에 걸맞게 파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많다. 언론협동조합, 책방, 출판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며, 비교적 초기에 설립(2013년 설립)된 파주타이포그래피교육협동조합이 파주시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해당 분야 협동조합들의 약진이 돋보인다.<sup>91)</sup>

또 하나 특이한 것은 2020년에 들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 7곳이나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파주시 사회적경제희망센터 인터뷰 및 자료 확인 결과 별도의 정책이나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이슈와 결부되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라 보인다. 다만 협동조합 설립현황 기준 7개소 중 4개소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주의해볼만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으며, 교육 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제조업 중 2곳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 (7) 포천시

89)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남북부 문화격차 심각,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문화시설 경쟁력 확보 시급”, <일요서울>, 2019.03.04.

90) 한국예총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yechongbon/222445877216>)

91) 파주시사회적경제희망센터 담당 주무관 유선 인터뷰 참고

<표61> 포천시 연도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2012	-	-	-
2013	7	-	7
2014	10	1	11
2015	13	-	13
2016	4	1	5
2017	12	-	12
2018	12	-	12
2019	14	1	15
2020	7	2	9
합 계	79	5	84

포천시는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비교적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총계로는 광명시(80개소), 오산시(80개소), 양평군(85개소)과 비교할 만하다. 다만 2021년 8월 기준 인구수가 광명시 29만 5,335명, 오산시 23만 554명, 양평군 12만 954명<sup>92)</sup>임을 감안할 때 인구 14만 8,296명의 포천의 경우 인구수와 대비하여서는 광명시와 오산시보다 훨씬 앞서며 양평군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62> 포천시 업종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도매 및 소매업	10	-	10
건설업	1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	6
제조업	17	-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1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1
교육서비스업	8	3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	4
농업, 어업 및 임업	13	-	13

92) 2021년 8월 기준,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	2
운수업	4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	3
숙박 및 음식점업	2	-	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1	2
가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합 계	79	5	84

포천시에 인구대비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까닭에 대해서는 연도별 설립현황 보단 업종별 현황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포천시의 협동조합 업종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17개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화성, 파주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모습은 파주시와 더불어 지자체의 인프라와 산업구조가 협동조합 설립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포천시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구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중 절반 가까이가<sup>93)</sup> 가구 및 목공예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아 가구 및 목공예 관련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었고, 해당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산업구조에 다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포천시는 전국 중저가 가구의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가구 산업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곳으로 꼽힌다.<sup>94)</sup>

93) 총 17개 제조업 협동조합 중 8개 협동조합이 해당한다.

94) 「[포천 가구산업 메카로 우뚝] 중저가 가구 승부수, 제대로 통했다」, <경기일보>, 2020.11.25.

#### 4. 맺으며

지금까지 경기도를 동북부, 서해안, 남부, 북부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연도별, 업종별 설립현황을 살펴보고, 특성들을 확인해보았다.

권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부 권역은 이천시, 여주시 등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업 도시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물적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한 만큼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이에 기반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해안 권역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인프라와 서해안 일대 관광·농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들도 농업, 어업 및 임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의 산업 구조 더불어 특히, 시흥시, 화성시 등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의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남부 권역은 경기도에서도 경제·사회·문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경기도의 공간적 환경이 두드러진 곳으로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협동조합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수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꿈의학교, 방과후 교육 등 정책적 요인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았다.

북부권역은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매우 크고, 지자체 별 면적이 넓어 생활권과 문화 인프라 등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지역별 특색이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큰 자본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종의 설립이 많고 중앙 차원의 정책보다 지자체의 위탁·공모사업과 생활환경, 산업 구조 등에 더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들은 대체로 협동조합 기본계획 등 중앙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정책을 수립하고, 추

진해야하며, 이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도 일치하는데 지역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추진체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다수의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역의 소규모, 특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생존을 위한 지역자치단체 주도의 제도적 자립기반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첨언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연도별, 업종별 설립현황이라는 2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타 기업의 재무현황 등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이 때문에 분석내용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협동조합협의회 인사 등 FGI를 통해 분석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했고, 앞으로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경기도 종합계획, 경기연구원(2015)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고용노동부(2021)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 기획재정부(2013)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 기획재정부(2016)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 기획재정부(2020)

### <언론보도>

「고양시의회, 서울-성남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부일보>, 2017.11.20.  
「과천시 대표적 꽃축제 ‘화훼전시회’ 개막」, <아주경제>, 2017.05.24.  
「과천시 소자본 창업 교육」, <인천일보>, 2013.10.16.  
「광명시, 일자리·신산업 창출하는 ‘협동조합 시대’연다」, <경기일보>, 2012.11.21  
「경기관광공사·김포시·하나투어 등 업무협약」, <국제뉴스>, 2016.06.23.  
「경기 광주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최우수상 수상」, 신아일보, 2020.12.30.  
「경기도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내외뉴스통신> 2021.05.07.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남북부 문화격차 심각,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문화시설 경쟁력 확보 시급」, <일요서울>, 2019.03.04.  
「[교육이 미래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학교·마을 함께 운영하는 공익 사업 ‘학생중심 교육복지 실현」, <중부일보>, 2019.07.31  
「군포시 사회적경제조직들, 지역사회공헌 본격화... 착한나눔기업에 기업들 첫 가입」, <중부일보>, 2019.11.20.  
「[기획보도] 양주시! 新 성장동력 유치로 일자리 창출한다」, <브레이크뉴스>, 2019.01.26.  
「남양주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상’ 수상」, <뉴스웍스>, 2020.12.22  
「남양주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성공전략’ 교육」, <경기일보>, 2013.09.04  
「문화예술로 “창조적 도시 평택’ 건설」, <경인일보>, 2013.02.05.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나선 고양시] 창업서 판로 지원까지... 사회적 기업 제도적 육성」, <경기일보>, 2018.05.28.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화성시, 고용노동부 주관 평가에서 대상 수상」, <한스경제>, 2021.07.02.

「서은경시의원, 성남시 ‘사회적경제과’ 신설 강력 촉구」, <성남데일리>, 2020.09.03

「성남시 ‘시민주주기업’ 각광받고 있어」, <성남투데이>, 2011.07.08

「성남시, 협동조합 100개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4.11.26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연합뉴스>, 2015.05.29

「시민이 행복한 안전·경제도시…안승남 시장이 꿈꾸는 구리시 ‘성큼」, <아시아타임즈>, 2021.07.19

「시흥시 사회적 경제기업 152개 일자리 4500개 늘린다」, <기호일보>, 2014.01.17

「시흥시, 시민친화적 사회적경제 만든다」, <중부일보>, 2014.01.24

「시흥시, 우리마을 동네관리소 활성화」, <매일일보>, 2016.10.28

「시흥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공동 책임 사회 조성 주력」, <이뉴스투데이>, 2021.05.25.

「시흥시,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강」, <기호일보>, 2013.06.17.

「양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일보>, 2014.11.17.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본격적 활동 시작」, <경기일보>, 2015.04.14.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창업협동조합 교육과정 개강」, <아주경제>, 2015.06.17.

「연천 중면횡산리마을회관 태양광설비준공식」, <경인일보>, 2016.10.06.

「(오산시/경기도청)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교육(7월)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2019.07.25

「오산시, ‘사회적 경제 카페’ 창업 지원」, <시사포커스>, 2015.03.24.

「용인시, 국내 최대 ‘원예유통단지’ 조성 급물살」, <경기일보>, 2017.03.09.

「용인시 ‘로컬푸드’ 성공비결은?」, <헤럴드경제>, 2015.09.08.

「[윤기영 센터장의 역설적 희망歌] “난 사회적경제팀이 없어지길 바란다”」, <더스쿠프>, 2018.08.02.

「의왕시 ‘개똥이네 협동조합’에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인천일보>, 2020.8.26

「이석우 남양주시장 시정연설 전문」, <아주경제>, 2013.02.15

「이재정 경기교육감 “꿈의학교 협동조합으로 나아가야”」, <이로운넷>, 2021.05.21.

「[인터뷰] 김만수 부천시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천국으로”」, <내일신문>, 2011.08.31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과천시의회 28일 간담회」, <경기일보>, 2013.09.24.

「진화 거듭 ‘시흥아카데미’ 지역거버넌스 모델 우뚝」, <뉴스1코리아>, 2015.10.14

「[창조경제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다함께 페스티벌 성료」, <남양주시 보도자료>, 2016.06.28

- 「[포천 가구산업 메카로 우뚝] 중저가 가구 승부수, 제대로 통했다」, <경기일보>, 2020.11.25.
- 「하남시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일자리 창출한다」, <아주경제>, 2019.04.19
- 「향후 100년을 바라본 의정부시의 일자리 정책」, <일요신문>. 2019.05.30.
- 「“협동조합 지역단위까지 확대될 것” 기재부 이어 교육부도 활성화 바람」, <브릿지경제>, 2016.02.24.
- 「협동조합 하루 평균 1.7개씩 설립」, <경기일보>, 2013.12.26.
- 「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원 지원」, <매일일보>, 2021.02.23.
- 「화성시 농·어업인 단체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 <뉴시스>, 2013.01.20
- 「화성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돼」, <뉴스투데이>, 2020.11.27.
- 「화성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찬회 가져」, <경기일보>, 2012.02.20
-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모집 시민 공청회 공모」, 아시아투데이, 2014.08.21.
- 「201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7백만 명’ 기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6.12.26.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선정」, <위클리오늘>, 2021.07.29